

보령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폐회... 제8대 의회 마무리

- 조례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4건 처리, 송전선로 지중화 대책 마련 건의 채택
- 박금순 의장, “마지막까지 희망을 전하는 의정활동 펼치고 시민과 동행할 것”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가 지난 12일 제243회 임시회 폐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했다.

첫날인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금순 의장의 건의안이 채택됐다. 박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주민의 여러 피해 현실을 지적하며, 송전선로 지중화 대책 마련과 신설되는 송전선로는 의무적으로 지중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박금순 의장

5일부터 7일까지 이어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을 심사했다. 5일에는 조례안 31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 3건, 기타 3건으로 총 42건을 심사했다. 6일과 7일에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건의안 채택

8일과 11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보령담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약 130억 원을 포함해 약 131억 원을 삭감 조정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843억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116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다. 일반회계는 9629억 원, 특별회계 1214억 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 최용식 의원 5분 발언, '휴대폰 서비스센터 보령시 유치해야'

한편, 지난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용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휴대폰 서비스센터 보령시 유치'를 제안했다.

최의원은 "휴대폰은 소통을 위한 수단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과 함께하는 생활필수품이지만 보령에는 고장과 파손 시 조치할 수 있는 서비스센터가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올해는 "'보령방문의 해'로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충남도민체전 등 2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휴대폰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한 서비스센터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식 의원 5분 발언

이날 제2차 본회의는 원안가결 41건, 수정의결 3건을 처리하며 폐회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7월 제207회 임시회부터 진행된 제8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박금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그동안 제8대 보령시의회와 함께 발맞춰준 시장과 직원, 그리고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 의회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시민 여러분과 동행하겠다"고 전했다.



▲제8대 의회 의원